

1998; Szirmak & De Raad, 1994), 이런 발견에 힘입어 5요인 모델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Ashton과 Lee는 5요인이 관찰된 자료들을 사용하여, 6요인 해(solution)를 검토한 결과, 놀랄 만큼 유사하게 여섯 개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Ashton & Lee, 2001, 2002; Ashton, Lee, & Son, 2000). 예를 들어, Ashton, Lee, Perugini, Szarota, De Vries, Di Blas, Boies 및 De Raad(2004)는 7개 언어(한국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프랑스어)를 사용하여 수행된 8개의 독립적 성격어휘 연구를 재검토한 결과, 6요인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수렴을 나타내었다(이 6요인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기술할 것임).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어어휘 연구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사실은 최근까지 이러한 6개 요인이 한번도 관찰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shton, Lee 및 Goldberg(in press)는 이제까지 수행된 영어어휘 연구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신뢰할만한 영어성격어휘 연구를 다시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격을 기술하는 영어 형용사의 전집에 가까운 1,710개의 용어에 대해 310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얻은 자기 평정치를 요인분석하였다(이 평정자료는 원래 1970년대 초에 Lewis R. Goldberg와 Warren Norman에 의해 수집되었으나 이전에 분석되지 않은 자료이다). 1990년대 이후에 실시된 영어연구들에서 사용한 어휘들이 거의 모두 이 1,710개 형용사의 하위 집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연구의 결과가 이전 연구의 결과보다 더 포괄적이고 타당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 영어 성격어휘 연구에서 발견된 요인구조는 과거 영어연구에서 발견된 5요인구조보다는 다른 언어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6개의 요인구조와 더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Lee와 Ashton(2004)은 새롭게 6요인 성격구조 이론을 제안하여 이를 HEXACO 모델이라고 명명하였고 이 차원들을 측정하는 성격검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러 나라의 언어에 포함된 성격어휘를 분석하여 발견한 성격의 6요인 모델(HEXACO 모델)과 이 모델을 기초로 개발된 HEXACO 성격검사(HEXACO-PI)를 소개한 후, HEXACO-PI를 번안하여 개발한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심리측정적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검사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는 데 있다.³

HEXACO 모델과 HEXACO 성격검사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Lee와 Ashton(2004)은 최근에 국제적 성격어휘 검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여섯 개의 요인에 근거하여 새로이 제안한 모델의 이름을 HEXACO 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은 6개 요인 이름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Honesty-Humility, Emotionality, eXtra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Openness to Experience). Lee와 Ashton(2004)은 여섯 개의 요인을 측정하는 HEXACO 성격검사를 개발하고 이 검사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보고하였다.

HEXACO 성격검사는 5요인 이론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NEO-PI-R(Costa

3 한국에서 이전에 108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HEXACO 성격검사가 사용된 적이 있으며, 한국판 단축형 검사에 대한 몇몇 심리측정적 속성이 보고된 바 있다 (Boies, Yoo, Ebacher, Lee, & Ashton, in press).

& McCrae, 1992)처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검사에서는 24개의 하위 성격특성이 측정되며, 이들 24개 성격특성은 국제적 성격어휘 연구에서 관찰된 6개의 상위 성격특성을 구성한다(부록 1에 HEXACO 성격검사에서 측정되는 하위 성격특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HEXACO 성격검사에서 측정되는 6개의 주요차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6개의 차원 중 외향성과 성실성은 5요인 모델의 해당요인과 거의 같으므로 여기서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부록 1 참조). HEXACO 모델에서 정의된 개방성은 5요인 모델에서의 해당요인과 매우 비슷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만한 미미한 차이가 있다. 성격의 어휘가설에 기초한 5요인(Big Five)의 다섯 번째 요인은 통상적으로 지성/상상성 요인으로 불려져 왔으며, 여기에는 상상성/창의성 측면 외에 똑똑함/머리좋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Goldberg, 1992). 그러나 Costa와 McCrae(1992)의 5요인 모델에서는 후자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요인의 이름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으로 명명되었다. HEXACO 모델에서도 역시 지적능력에 대한 내용은 다섯 번째 요인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Costa와 McCrae가 개념화한 개방성과 더 비슷하다. 지성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성격의 영역 밖에 있으며, 자기평가나 동료평가에 기초한 지적능력의 평정치는 표준 지능검사로 측정된 인지능력과 성격차원의 개방성의 두 벡터에 의해 효율적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Ashton, Lee, Vernon, & Jang, 2000).

나머지 3개의 요인은 5요인 모델의 그것과 구분되는 특징이 두드러지므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정직/겸손성 HEXACO 모델과 5요인 모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새로 추가된 여섯 번째 요인이다. 이 요인은 8개의 언어에서 관찰되었으며⁴, 일반적으로 정직함/꾸밈없음/겸손함과 잘난척함/탐욕스러움/교활함 등의 내용으로 정의되어져 왔다. Ashton과 Lee(2001)는 기존에 연구되고 있었던 성격특성들 중 타인의 착취와 조종과 관련된 성격, 즉 마키아벨리안 성격, 반사회적 범죄성(primary psychopathy), 그리고 Jackson 성격검사의 사회적 영민성(social adroitness) 등이 5요인 중 어떤 요인과의도 강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정직/겸손성 요인과는 강한 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이들 성격특성들은 5요인 공간 내에서는 들어설 자리가 없으나, 6요인 공간 내에서는 매우 잘 표현되는 성격개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shton, Lee, & Son, 2000). HEXACO 성격검사의 정직/겸손 요인은 진실성, 도덕성, 청렴성, 겸손성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원만성과 정서성. 5요인 모델의 원만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국제 성격어휘 연구나(Ashton et al., 2004) 최근의 영어어휘 연구(Ashton, Lee, & Goldeberg, in press)에서 관찰된 그들에 해당하는 요인과 다르며, HEXACO 모델은 이러한 연구들에서 발견된 요인에 기초하여 이 두 개념을 정의하였다. HEXACO 원만성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화잘냄/성마름이다(Ashton et al., 2004의 표 2 참조). 그러나 이런 화잘냄/성마름 등의 내용은 5요인 모델에서는 정서적 안정성 요인을 나타내는 축의 반대쪽을 대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5요인 모델의 원만성은 화잘냄/성마름 등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Costa와 McCrae(1992)의

4 지금까지 국제적 성격어휘 연구에서 정직/겸손 요인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는 체코 연구이나(Hrebickova, 1995), 이 연구에서 발견된 여섯 번째 요인은 손재주/정교함 등을 나타내는 비성격적 용어로 구성된 차원이었다. 이런 비성격용어를 제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NEO-PI-R 성격검사에서도 분노/적대감 척도는 원만성 요인이 아니라 신경증(즉,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HEXACO 정서성은 *화잘냄/성마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5요인 이론의 정서적 안정성과 다른 점이다. 이 정서성 요인은 5요인 모델의 정서적 안정성 요인에서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특성들 예컨대, *용감성/남자다움/자신감* 등과 요인 축의 반대쪽의 특성인 *불안함/무서움* *맑음*, *예민함/감정적/감상적* 등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HEXACO 원만성과 정서성이 각각 5요인 모델의 원만성과 정서적 안정성과 개념적으로 다른 점은 실제로 같은 요인공간 내에서 이 요인들의 축의 방향이 회전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HEXACO의 이 두 요인은 5요인 모델의 두 요인으로부터 약 30도가량 회전된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차이는 요인분석에서 축 회전에서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Ashton과 Lee(2001)는 이런 회전된 원만성과 정서성이 갖는 이론적 이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부록 1에 나타나 있듯이 HEXACO 원만성은 관용성, 온유성, 융통성, 인내성으로 정의되며, HEXACO 정서성은 두려움, 불안, 의존성, 감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HEXACO 모델과 5요인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HEXACO 모델과 5요인 모델(FFM)의 비교

| HEXACO 모델의 6요인 | 5요인(Big Five) 모델에서 상응하는 요인 |
|------------------------------|------------------------------------|
| 정직/겸손성(Honesty-Humility) | 없음 |
| 정서성 (Emotionality) | 정서적 안정성(-); 원만성(+) |
| 외향성 (eXtraversion) | 외향성 |
| 원만성 (Agreeableness) | 정서적 안정성(+); 원만성(+) |
| 성실성 (Conscientiousness) | 성실성 |
| 개방성 (Openness to Experience) | 지성/상상력/개방성 요인에서 지적능력이 제외된 것(본문 참조) |

주.(-)는 상응하는 6요인과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는 상응하는 6요인과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판 HEXACO 성격검사를 사용한 연구

Lee와 Ashton(2004)은 영어판 HEXACO 성격검사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보고하였다. 첫째, 하위 성격특성 척도의 신뢰도(알파계수)가 .77에서 .88사이이고, 상위 성격특성 척도의 신뢰도가 .89에서 .92사이였다. 이러한 신뢰도 수준은 다른 기존의 성격검사(예, NEO-PI-R)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이다. 둘째, 24개의 하위척도 평정치를 요인분석한 결과, (1) 6개의 상대적으로 커다란 요인이 관찰되었고(스크리 검사 결과), (2) 모든 하위 성격특성 척도들은 모두 그들이 속한 영역의 요인에 가장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셋째, 6개의 상위 요인척도들은 서로 높지 않은 상관을 나타냈으므로 이 6개의 요인들은 개념적으로 변별되었다. 6요인의 상호상관 중 가장 높은 상관은 .28로 정직/겸손성과 성실성 사이에서 관찰되었고, 두 번째로 높은 상관은 외향성과 개방성 사이에서 관찰된 .23이었다. 이처럼 낮은 상관은 기존의 다른 5요인 성격검사들에 포함된 요인간의 독립성에 비해서 훨씬 더 호의적인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HEXACO 성격검

사에 포함된 상위척도들은 개념적으로 유사한 다른 성격척도들과 기대에 완전히 부합하는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EXACO의 외향성, 성실성,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5요인 모델에서 상응하는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기대한 대로 5요인의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을 측정하는 여러 다른 측정치와 매우 높게 수렴한다. 즉 HEXACO의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요인은 NEO-PI-R이나 NEO-FFI로 측정된 그 세 요인(Lee, Ashton, & De Vries, in press), IPIP로 측정된 세 요인(Lee & Ashton, 2004), 그리고 Big Five Inventory로 측정된 세 요인(Lee, Ashton, & De Vries, in press)과 높은 수렴타당도를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HEXACO 원만성과 정서성은 Big Five의 원만성과 정서적 안정성과는 일대일 대응관계가 아니라 그 두 축이 이루는 공간상에서 회전된 축으로 개념화된다. 이 회전된 축에 의한 설명에 따르면, HEXACO 원만성은 Big Five 원만성과 정서적 안정성 모두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야 한다. 또 HEXACO 정서성은 Big Five 원만성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Big Five 정서적 안정성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야 한다. 이런 예측은 최근 몇몇 자료에서 지지되었다(예, Boies et al., in press).

정직/겸손성 요인은 전혀 새로운 요인이기 때문에 이 요인의 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몇몇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Lee, Ashton 및 De Vries(in press)는 성격특성에 의해 종업원들의 일탈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캐나다, 호주,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HEXACO 성격검사와 다른 세 개의 5요인 측정치 즉, NEO-FFI(Costa & McCrae, 1992),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Goldberg, 1999), Big Five Inventory(John, Donahue, & Kentle, 1991)를 사용하여 종업원들의 성격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세 다른 나라에서 수집된 표집에서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HEXACO 모델이 5요인 모델보다 종업원 일탈행동을 예측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었으며, 이러한 예측력의 증가는 주로 HEXACO 모델에 포함된 정직/겸손성 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HEXACO 모델은 ‘세 가지 부정적 성격변인(Dark Triad)’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르시시즘, 반사회적 범죄성, 마키아벨리즘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성격변인은 모두 인간의 착취와 조종을 수반하는 것으로 서로 유의한 상호상관을 보인다. Paulhus와 Williams(2002)는 이러한 성격변인들이 5요인 모델의 원만성과 일관되게 부적 관계를 나타내지만, 관계의 정도는 별로 크지 않음을 발견하였다(반사회적 범죄성과의 상관은 -.25, 마키아벨리아니즘과의 상관은 -.47, 나르시시즘과의 상관은 -.36). 이와는 대조적으로, Lee와 Ashton(in press)은 이 세 성격변인이 HEXACO의 정직/겸손성 요인과 매우 강력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반사회적 범죄성과의 상관은 -.72, 마키아벨리즘과의 상관은 -.57, 나르시시즘과의 상관은 -.53). 이 세 변인들과 HEXACO 요인들과의 상관을 이용하여 세 변인간의 상호상관을 산출했을 때⁵, 그 값들은 실제로 관찰된 상호상관과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부정적 성격변인들과 5요인과의 상관을 이용하여 세 변인들의 상호상관을 추정했을 때, 이 추정된 상호상관은 실제로 관찰된 상호상관과 큰 차이를 보

5 세 변인의 상호상관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되었다. 재산출 상관행렬 = $P \times C \times P'$, 여기서 P는 표준회귀계수로 구성된 형태계수행렬(세 변인 \times 6개 모델변인), C는 모델변인들의 상관계수행렬(6개 모델변인 \times 6개 모델변인), P'은 P를 치환한 행렬을 나타낸다.

였다. 이것은 5요인 모델이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제한점을 HEXACO 모델이 잘 극복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개발된 HEXACO 성격검사를 한국화하여 그것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HEXACO 성격검사에 포함된 척도들의 내적일치 신뢰도, 요인 타당도, 수렴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281명의 대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남자가 152명(54%), 여자가 129명(46%)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7세(표준편차 2.6세)였다. 강의실에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학생들에게 연구 참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필기구를 선물하였다.

측정치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으로는 1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2는 동의하지 않는 편, 3은 중간정도, 4는 동의하는 편, 5는 매우 동의함과 같은 리커트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사용자가 Lee와 Ashton(2004)이 개발한 HEXACO-PI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또 다른 이중 언어 사용자가 재번역(back-translation)하는 절차를 거쳐 의미상 동일한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를 제작하였다. Lee와 Ashton(2004)이 영어판 HEXACO-PI를 개발할 때 그들은 600개 이상의 문항을 1,000명 이상의 다양한 표본들에 실시하여 다양한 심리측정적 준거에 부합하는 192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검사개발 절차는 주로 Jackson(1971)이 제안한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측정하려는 척도를 선형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였다. 물론 척도의 정의는 이전에 언급한 성격어휘 연구에서 관찰된 6개 요인의 전형(prototype)을 구현하도록 개념화되었다. HEXACO 성격검사 문항은 다른 성격검사처럼 성격특성과 관련된 행동/사고/기분을 나타내는 문장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기술한 것처럼, 이 검사는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연구에 기초하여 발견된 6개 주요차원에 근거한 것이다. 이 성격검사는 6개 차원 각각에 4개씩, 총 2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검사의 전체 문항수는 192개이다. 문항을 자세히 읽지 않고 성의없이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략적으로 각 하위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반 정도를 역문항으로 구성하였다⁶. 따라서 모든 하위요인에는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의 역문

6 하위요인 척도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역문항에 대해서 1은 5로, 2는 4로, 4는 2로, 5는 1로 변환하였다.

항이 포함되어 있다.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타 측정치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검사에 포함된 척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리라고 기대되는 여섯 개 척도를 선정 한 후, 이 문항들을 번역하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다섯 개는 Goldberg(1999)의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IPIP)에 포함된 척도에서 선정하였다. 첫째, 성격의 5요인(Big Five)을 측정하는 척도 중에서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개의 척도는 각각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 세 개의 척도는 각각 HEXACO 성격검사의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과 높은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둘째, IPIP에는 성격의 5요인들 중 2개의 짝들로 구성되는 2차원 평면상에서 두 개의 축 사이에 존재하는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45개의 하위척도(Abridged Big Five Dimensional Circumplex, AB5C)가 포함되어 있는데(Hofstee, De Raad, & Goldberg, 1992), 이들 중 쾌활성(Pleasantness) 척도와 침착성(Imperturbability) 척도를 포함하였다.

쾌활성 척도는 높은 원만성/높은 정서적 안정성과 낮은 원만성/낮은 정서적 안정성이 양극에 위치하는 연속선 상에서의 성격특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침착성 척도는 높은 정서적 안정성/낮은 원만성과 낮은 정서적 안정성/높은 원만성이 양극에 위치하는 연속선 상에서의 성격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척도는 성격 5요인의 원만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위치하는 축으로부터 약 30도 정도 회전한 위치의 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HEXACO의 원만성과 정서성 축의 위치와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쾌활성 척도는 11개 문항, 침착성 척도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Levenson, Kiehl 및 Fitzpatrick(1995)이 제안한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반사회적 범죄성 척도(Primary Psychopathy Scale)가 한국어 형용사 척도에 의해 측정된 정직/겸손성 요인과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기 때문에(Ashton, Lee, & Son, 2000; Lee & Ashton, in press), 반사회적 범죄성 척도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반사회적 범죄성 척도는 HEXACO의 정직/겸손성 척도와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결 과

성격검사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

표 2에는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가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6개 상위요인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6개 상위요인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85(정서성)에서 .93(외향성)까지의 범위에 있고, 6개 상위요인의 신뢰도 평균은 .89였다. 24개 하위요인 척도의 신뢰도는 .60(비관성)에서 .88(치밀성)까지의 범위에 있고, 24개 하위요인 척도의 신뢰도 평균은 .77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판 HEXACO 성격검사 에서 얻어진 신뢰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지만 기존의 다른 성격검사와 비교해 볼 때는 더 높은 수준이다.

표 2.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에 포함된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알파계수)

| 척도 | 신뢰도 | 척도 | 신뢰도 |
|---------------|-----|------------|-----|
| 정직/겸손성 | .89 | 원만성 | .89 |
| 진실성 | .74 | 관용성 | .77 |
| 도덕성 | .78 | 온유성 | .78 |
| 청렴성 | .80 | 융통성 | .74 |
| 겸손성 | .83 | 인내성 | .84 |
| 정서성 | .85 | 성실성 | .89 |
| 두려움 | .76 | 치밀성 | .88 |
| 불안 | .68 | 근면성 | .68 |
| 의존성 | .79 | 완벽성 | .74 |
| 감수성 | .69 | 신중성 | .77 |
| 외향성 | .93 | 개방성 | .88 |
| 표현성 | .85 | 심미성 | .82 |
| 사회적 대담성 | .86 | 지적호기심 | .74 |
| 사회성 | .73 | 창조성 | .83 |
| 활력 | .88 | 비관습성 | .60 |

주. $N = 281$. 24개 하위요인 척도는 각각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 상위요인은 각각 32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포함한 6개 척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IPIP 성실성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77, 외향성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88, 개방성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83, 침착성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84, 쾌활성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73, Levenson 등(1995)의 반사회적 범죄성 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는 .78이었다.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24개 하위요인 척도값을 사용하여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겐값이 1.0이상인 요인이 6개로 나타났고(처음 10개 요인까지의 아이겐값은 큰 순서대로 4.53, 3.38, 2.29, 2.17, 1.83, 1.44, 0.83, 0.80, 0.70, 0.68이었다.), 6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65.2%를 설명하였다. 요인수를 6개로 고정하여 베리맥스 방식으로 회전한 요인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하위요인들은 그들이 속한 지정된 상위요인과 가장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었고, 해당 상위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의 크기는 .48(겸손성)에서 .89(활력)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모든 하위요인들은 관련없는 상위요인과 모두 .40 이하의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었다. 겸손성 척도의 요인부하량은 다른 척도에 비해 다소 낮으며 이 척도는 외향성 요인에도 적지 않은 부하량(-.39)을 보였다. 이것은 한국판 겸손성 척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겸손성 척도의 문제는 논의에서 좀 더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는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6요인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

표 3.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24개 하위요인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 척도 | 요 인 | | | | | |
|---------|------------|------------|------------|------------|------------|------------|
| | 외향성 | 개방성 | 원만성 | 성실성 | 정서성 | 정직/겸손성 |
| 진실성 | -.09 | .08 | .16 | -.02 | -.12 | .78 |
| 도덕성 | .08 | .03 | .14 | .26 | .08 | .75 |
| 칭렴성 | -.19 | -.07 | .09 | -.01 | -.14 | .77 |
| 겸손성 | -.39 | -.35 | .18 | -.20 | .12 | .48 |
| 두려움 | -.26 | -.37 | -.13 | .12 | .59 | -.07 |
| 불안 | -.27 | .07 | -.15 | -.05 | .68 | -.06 |
| 의존성 | .13 | -.21 | -.01 | -.17 | .72 | -.14 |
| 감수성 | .22 | .19 | .26 | .06 | .75 | .07 |
| 표현성 | .78 | .06 | -.36 | -.14 | .04 | -.09 |
| 사회적 대담성 | .73 | .28 | -.15 | .15 | -.28 | -.02 |
| 사회성 | .70 | -.11 | .04 | -.08 | .31 | -.26 |
| 활력 | .89 | .07 | .08 | .06 | -.09 | -.03 |
| 관용성 | .15 | .12 | .58 | -.13 | -.01 | .18 |
| 온유성 | -.14 | -.01 | .84 | .06 | .06 | .09 |
| 융통성 | -.15 | -.30 | .71 | -.12 | .22 | .04 |
| 인내성 | -.12 | -.01 | .80 | .13 | -.13 | .16 |
| 치밀성 | .01 | .03 | .01 | .82 | -.01 | -.02 |
| 근면성 | .37 | .25 | -.08 | .65 | -.19 | .02 |
| 완벽성 | -.09 | .20 | -.23 | .69 | .16 | .02 |
| 신중성 | -.07 | -.11 | .24 | .75 | -.13 | .16 |
| 심미성 | -.01 | .77 | -.05 | .11 | .22 | .14 |
| 지적 호기심 | -.05 | .69 | .04 | .09 | -.17 | -.10 |
| 창조성 | .31 | .73 | .01 | .10 | .01 | -.04 |
| 비관습성 | .04 | .71 | -.09 | -.03 | -.10 | .01 |

주. N=281.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40보다 큰 것은 진하게 표시하였음.

HEXACO 성격검사의 6개 상위요인간 상관

표 4에서 보듯이 6개 상위요인간 상관계수는 대체로 낮은데, 이는 6개 요인이 대략적으로 독립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직/겸손성과 원만성간 상관인 .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정직/겸손성과 외향성간 상관인 -.33으로 높았다. 6요인간 나머지 상관값들은 모두 절대값이 .22이하로 상당히 적은 관련성을 보였다. 정직/겸손성과 다른 5개

요인들간의 상관이 비교적 낮다는 것은 정직/겸손성 요인의 변량이 HEXACO 검사에 포함된 다른 5개 요인들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6요인간 상관은 NEO-PI-R(Costa & McCrae, 1992), NEO-FFI(Egan, Deary, & Austin, 2001), IPIP-NEO와 IPIP-Big Five Scale(Goldberg, 1999)과 같은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는 검사에서의 5요인간 상관보다 전반적으로 더 낮았다. 예를 들어, Costa와 McCrae(1992, p.100)는 NEO-PI-R에서 신경증(정서적 안정성의 반대개념)은 성실성과 -.53의 상관을 지니고, 개방성은 외향성과 .40의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표 4. HEXACO 성격검사의 6요인간 상호상관

| 척도 | 1 | 2 | 3 | 4 | 5 |
|-----------|--------|-------|--------|------|-------|
| 1. 정직/겸손성 | | | | | |
| 2. 정서성 | -.07 | | | | |
| 3. 외향성 | -.33** | -.10 | | | |
| 4. 원만성 | .35** | .01 | -.22** | | |
| 5. 성실성 | .05 | -.08 | -.06 | -.02 | |
| 6. 개방성 | -.10 | -.14* | .22** | -.10 | .21** |

주. N=281. * $p < .05$, ** $p < .01$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 척도의 수렴타당도

이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 척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리라고 기대되는 6개 척도를 포함하였다.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HEXACO 성격검사의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은 5요인(Big Five)에서 이 세 요인에 해당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5요인의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요인을 나타내는 IPIP 척도를 포함하였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HEXACO 성격검사의 원만성과 정서성은 5요인의 원만성과 정서적 안정성 축을 약간 회전시킨 변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Abridged Big Five Dimensional Circumplex(AB5C)로부터 선정된 두 척도인 쾌활성과 침착성은 5요인의 원만성과 정서적 안정성 축의 위치를 약 30도 가량 회전시킨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HEXACO 성격검사의 원만성과 정서성을 이 두 개의 IPIP 척도와 매우 비슷한 개념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HEXACO 성격검사의 정직/겸손성 요인과 밀접한 대응관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되는 척도로서 반사회적 범죄성 척도(Levenson et al., 1995)를 포함하였다. 이 척도는 이전 연구(Ashton, Lee, & Son, 2000)에서 정직/겸손성 요인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5요인에 해당하는 요인들과는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5에는 HEXACO 성격검사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포함한 6개 척도와 HEXACO 성격검사의 6개 상위요인 및 24개 하위요인과의 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6개 상위요인과 각 요인과 관련된 하위요인들은 모두 밀접한 대응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했던 척

도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HEXACO 성격검사의 외향성과 IPIP 외향성간 상관이 .88로서 가장 높은 수렴타당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HEXACO 성격검사의 성실성과 IPIP 성실성간 상관이 .83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상관은 HEXACO 성격검사의 정서성과 IPIP의 침착성간의 -.59였다.

표 5. HEXACO 성격검사 척도들과 대응되는 척도들간의 상관

| HEXACO 척도 | HEXACO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관련척도 | | | | | |
|---------------|--------------------------------|-------------|-------------|-------------|-------------|-------------|
| | 반사회적 범죄성 | IPIP 침착성 | IPIP 외향성 | IPIP 쾌활성 | IPIP 성실성 | IPIP 개방성 |
| 정직/겸손성 | -.71 | .07 | -.29 | .18 | -.07 | -.22 |
| 진실성 | -.59 | .08 | -.14 | .12 | -.05 | -.06 |
| 도덕성 | -.65 | -.03 | -.01 | .22 | .16 | .03 |
| 청렴성 | -.54 | .08 | -.24 | .06 | -.05 | -.15 |
| 겸손성 | -.31 | .07 | -.47 | .12 | -.28 | -.46 |
| 정서성 | -.04 | -.59 | -.14 | .09 | -.08 | -.18 |
| 두려움 | -.01 | -.30 | -.26 | -.08 | -.06 | -.30 |
| 불안 | -.01 | -.41 | -.21 | -.12 | -.07 | -.08 |
| 의존성 | .09 | -.41 | .03 | .16 | -.14 | -.18 |
| 감수성 | -.20 | -.56 | .06 | .32 | .06 | .07 |
| 외향성 | .10 | -.05 | .88 | .12 | .18 | .32 |
| 표현성 | .18 | -.13 | .71 | -.08 | .02 | .22 |
| 사회적 대담성 | .04 | .09 | .79 | -.01 | .29 | .43 |
| 사회성 | .14 | -.14 | .59 | .23 | .04 | .12 |
| 활력 | -.01 | -.01 | .75 | .29 | .21 | .25 |
| 원만성 | -.35 | .11 | -.16 | .65 | -.03 | -.12 |
| 관용성 | -.21 | -.01 | .06 | .45 | -.03 | -.01 |
| 온유성 | -.29 | .08 | -.21 | .62 | -.02 | -.05 |
| 융통성 | -.21 | .01 | -.21 | .48 | -.15 | -.30 |
| 인내성 | -.34 | .24 | -.14 | .45 | .08 | -.03 |
| 성실성 | -.16 | .13 | .10 | -.04 | .83 | .17 |
| 치밀성 | -.10 | .09 | .05 | -.05 | .82 | .10 |
| 근면성 | -.05 | .07 | .32 | .01 | .59 | .27 |
| 완벽성 | -.09 | -.07 | -.02 | -.17 | .51 | .14 |
| 신중성 | -.24 | .30 | -.02 | .09 | .54 | .04 |
| 개방성 | -.04 | -.22 | .21 | -.08 | .17 | .73 |
| 심미성 | -.12 | -.35 | .08 | -.08 | .12 | .45 |
| 지적 호기심 | -.03 | .06 | .09 | -.07 | .16 | .52 |
| 창조성 | .03 | -.23 | .33 | .01 | .15 | .75 |
| 비관습성 | .04 | -.12 | .13 | -.13 | .06 | .47 |

주. N=281. 절대값이 .40보다 큰 상관은 진하게 표시하였음.

24개 하위요인들과 6개 척도간 상관값들도 6개 상위요인들과 6개 척도 사이에서 얻어진 수렴상관 및 변별상관과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겸손성 척도와 두

려움 척도에서 영어판 HEXACO 성격검사(HEXACO-PI)에서의 결과(Lee & Ashton, 2004)와 약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겸손성 척도는 반사회적 범죄성 척도보다 IPIP 외향성 및 IPIP 개방성과 부적으로 더 높은 관련을 보였으며, 두려움 척도도 수렴할 것으로 기대했던 IPIP 침착성 척도와 다소 약한 상관을 나타냈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수행된 성격구조 연구들에서 밝혀진 6요인을 측정하는 새로운 검사인 HEXACO-PI 한국어판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토하였다. 6개 요인은 개념적으로 서로 독립적이고 개념적으로 유사한 다른 척도들과 높은 수렴타당도를 나타내었다. 6요인간 상관이 낮다는 것은 이러한 개념들간의 중복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개념적으로 거의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HEXACO 성격검사의 6개 요인들은 높은 수렴타당도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다른 척도들과 이론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6개의 관련 척도들은 HEXACO 성격검사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한 해당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과는 강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HEXACO 성격검사의 6개 요인은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는 성격검사로써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모든 척도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적일치 신뢰도를 나타내었고, 이 연구에서 처음에 가정하였던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6요인 구조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스크리 검사와 상위요인에 대한 하위요인 척도의 요인부하량을 검토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의 기대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따라서 24개 하위요인 구조로 되어 있는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는 만족스러운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를 사용함으로써 현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격의 5요인 모델에 기초한 성격검사(예, NEO-PI-R)에 비해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이득이 있다. 첫째, HEXACO 성격검사는 기존의 성격 5요인 이외에 4개의 하위요인들에 의해 정의된 정직/겸손성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요인에 기초한 다른 성격검사들에 비해 장점을 지닌다. NEO-PI-R 성격검사가 원만성 요인 내에 정직/겸손성 요인과 관련된 약간의 내용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지만, 정직/겸손성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한 특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외현적 정직성 검사나 이와 유사한 측정치들은 NEO-PI-R 검사의 어떤 하위요인들보다도 HEXACO 성격검사의 도덕성 요인과 더 높은 상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유사하게, 물질주의나 지위추구와 관련된 측정치들은 NEO-PI-R 검사의 어떤 하위요인들보다도 HEXACO 성격검사의 청렴성 요인과 더 높은 상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5요인 모델에 기초한 성격검사에 의해서는 예측이 잘 안되지만 HEXACO 성격검사에 포함된 요인에 의해 예측이 더 잘 되는 성격관련 준거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EXACO 모델은 정직/겸손성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행동과 관련된 준거변인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얻어졌다. 정직/겸손성 요인은 5요인 중 어떤 요인보다도 작업장에서의 일탈행동

(Lee, Ashton, & Shin, in press)과 성희롱 경향성(Lee, Gizzarone, & Ashton, 2003)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에 Lee, Ashton 및 De Vries(in press)는 HEXACO 성격 검사의 6요인이 NEO-FFI(Costa & McCrae, 1992)나 IPIP(Goldberg, 1999)와 같은 5요인 모델에 근거한 성격검사보다 작업장에서의 일탈행동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5요인 모델보다 HEXACO 성격검사가 예측력이 더 높은 것은 이 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정직/겸손성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기범, 유태용, Ashton, 2003).

앞으로의 연구과제

정직/겸손성 요인의 하위요인은 진실성, 도덕성, 청렴성, 겸손성인데, 이러한 특성들은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즉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는 상황(예, 직업을 얻으려고 지원하는 상황)에서 응답자들이 정직/겸손성 요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선발장면에서 지원자에게 정직성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을 자기보고에 의해 기술하도록 했을 때는 의도적인 응답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정직/겸손성 요인의 점수가 사실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응답을 왜곡할 만한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예, 연구목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된 경우) 측정된 정직/겸손성 요인 점수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왜곡된 반응양식으로부터 비롯된 값이라기보다 진정한 성격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Lee, Gizzarone 및 Ashton(2003)은 150명의 남자들로부터 정직/겸손성 요인을 측정하는 18개 문항과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는 IPIP를 사용하여 성격에 관한 자기평정 자료와 동료평정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직/겸손성에 관한 자기평정과 동료평정간의 상관은 .43으로서, 서로 다른 평정자를 사용하여 성격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평정자간 상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다(Watson, Hubbard, & Wiese, 2000). 동일한 자료에서 성격의 5요인에 관한 자기평정과 동료평정간 상관은 .27(정서적 안정성)에서 .48(외향성)의 범위에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정직/겸손성 요인의 출처간 상관은 외향성 다음으로 가장 컸다. 또한 이 연구에서 동료들이 평정한 정직/겸손성은 동료들이 평정한 성격의 5요인 중 어떤 요인보다도 자기보고에 의한 성희롱 경향성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보고에 의한 HEXACO의 정직/겸손성 요인 점수가 반드시 반응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는 대체로 호의적인 심리측정적 속성을 보였지만,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겸손성 척도이다. 베리맥스 방법으로 회전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이 척도는 HEXACO의 외향성 및 개방성과 적지않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었고, IPIP 외향성과 개방성과 매우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겸손성 척도나 이와 비슷한 척도가 한국에서 척도화될 때 이러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McCrae와 Costa(1997)가 한국판 NEO-PI-R을 요인분석하였을 때, NEO-PI-R의 겸손성 척도는 그 척도가 속한 원만성 요인보다 외향성 요인에 더 큰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Ashton, Lee 및 Son(2000)이 IPIP의 겸손성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연구를 수행했을 때도, 이 척도는 정

직/겸손성 요인이나 5요인의 원만성보다는 5요인의 외향성이나 지성/상상력 요인과 더 높은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런 일련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북미에서의 겸손이라는 구성개념의 표출적 양태는 한국에서의 그것과 약간 다른 것 같다. 북미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많은 행동들은 한국에서는 내성적 성향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에서 겸손이라는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들여와 쓰기 어렵기 때문에, 겸손성 척도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토착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토착적으로 개발된 겸손 척도를 사용하여 그것이 북미의 겸손 척도에 비해 준거변인의 예측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성격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HEXACO 성격검사가 한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부가적 연구과제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HEXACO 성격검사의 6개 상위 요인에 대한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평가하였지만, 보다 완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24개 하위척도에 대한 변별 및 수렴타당도의 증거도 평가해야 한다. 둘째, 한국에서도 중요준거에 대한 예측력을 중심으로 HEXACO 모델과 5요인 모델을 비교검증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예, Lee, Ashton, & De Vries, in press).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요인분석 결과가 6요인 모델(즉, HEXACO 모델) 그 자체를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사전에 가설화된 요인구조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검사를 요인분석해서 그 가설화된 요인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검사 개발자의 심리 측정 기술의 유능성만을 나타낼 뿐이며, 이러한 결과 자체가 인간의 진정한 기본성격차원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분석 결과는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타당도를 나타내는 증거 그 이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HEXACO 성격검사에서 측정하는 6요인을 인간의 기본 성격차원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여 수행된 성격어휘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5요인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검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주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5요인을 측정하는 NEO-PI-R 성격검사 자료를 요인분석했을 때, 5요인(Big Five)을 발견하는 것 역시(그 검사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다 하더라도) 5요인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 결과는 단지 NEO-PI-R 성격검사의 구성타당도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인간의 성격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인간성격특성의 대표성을 보장해주는 변인들의 집합을 분석할 때에만 그 의미를 가지며, 현재 이 목적을 가장 객관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은 성격어휘를 분석하는 연구뿐이다. 앞으로 수행될 보다 많은 성격어휘 연구 결과에 의해 가장 적합한 성격구조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1997).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제 10권 제 1 호, 85-102.
- 이기범, 유태용, Ashton, M. C.(2003). 새로운 6요인 성격구조 이론: 산업 및 조직 심리학적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 16권 제 3 호, 89-105.
- Ashton, M. C., & Lee, K. (2001). A theoretical basis of major personal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 327-353.
- Ashton, M. C., & Lee, K.(2002). Six independent factors of personality description: A response to Saucier.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 63-75.
- Ashton, M. C., & Lee, K. (in press). A defense of the lex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personality structur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 Ashton, M. C., Lee, K., & Goldberg, L. R.(in press). A hierarchical analysis of 1,710 English personality-descriptive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Ashton, M. C., Lee, K., Perugini, M., Szarota, P., De Vries, R. E., Di Blas, L., Boies, K., & De Raad, B. (2004). A Six-Factor Structure of Personality-Descriptive Adjectives: Solutions from Psycholexical Studies in Seven Langu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356-366 .
- Ashton, M. C., Lee, K., & Son, C. (2000). Honesty as the sixth factor of personality: correlations with Machiavellianism, Psychopathy, and Social Adroitn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359-368.
- Ashton, M. C., Lee, K., Vernon, P. A., & Jang, K. L. (2000). Fluid intelligence, crystallized intelligence, and the openness/intellect fact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 198-207.
- Boies, K., Yoo, T. Y., Ebacher, A. R., & Lee, K., & Ashton, M. C. (in press).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French and Korean version of the HEXACO-PI.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NEO Personality Inventory Revised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
- Di Blas, L., & Forzi, M. (1998). An alternative taxonomic study of personality-descriptive adjectives in the Italian languag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2, 75-101.
- Egan, V., Deary, I., & Austin, E. (2001). The NEO-FFI: Emerging British norms and an item-level analysis suggest N, A and C are more reliable than O and 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907-920.
- Galton, F. (1884). Measurement of character. *Fortnightly Review*, 36, 179-185.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for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 26-42.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In I. Mervielde, I. Deary, F. De Fruyt, and F. Ostendorf (Ed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Vol. 7* (pp. 7-28). Tilburg University Press: The Netherlands.
- Hofstee, W. K. B., De Raad, B., & Goldberg, L. R. (1992). Integration of the Big Five and circumplex approaches to trait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46-163.
- Hrebickova, M. (1995). *The structural model of personality based on the lexical analysis: A Czech replication study of the five-factor model based on a comprehensive taxonomy of personality-descriptive adjectives*. Unpublished manuscript, Institute of Psychology, Academy of Sciences of the Czech Republic: Brno.
- Jackson, D. N. (1971). The dynamics of structured personality tests: 1971. *Psychological Review*, *78*, 229-248.
- John, O. P., Donahue, E. M., & Kentle, R. L. (1991). *The "Big Five" Inventory - Versions 4a and 54*.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stitute of personality and Social Research.
- Lee, K., & Ashton, M. C.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 329-358.
- Lee, K., & Ashton, M. C. (in press). Psychopathy, Machiavellianism, and Narcissism in the Five-Factor model and the HEXACO model of personality struct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 Lee, K., Ashton, M. C., & De Vries, R. E. (in press). Predicting workplace delinquency and integrity with the HEXACO and Five-Factor Models of personality structure. *Human Performance*.
- Lee, K., Ashton, M. C., & Shin, K. H. (in press). Personality correlates of workplace anti-social behavior.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 Lee, K., Gizzarone, M., & Ashton, M. C. (2003). Personality and the likelihood to sexually harass. *Sex Roles*, *49*, 59-69.
- Levenson, M. R., Kiehl, K. A., & Fitzpatrick, C.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51-158.
- McCrae, R. R., and Costa, P. T., Jr., (1997). Personality trait structure as a human universal. *American Psychologist*, *52*, 509-516.
- McCrae, R. R., & Costa, P. T., Jr. (2003). *Personality in adulthood: A five-factor theory*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 Paulhus, D. L., & Williams, K. M. (2002).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 556-563.
- Saucier, G., & Goldberg, L. R. (1996). Evidence for the Big Five in analyses of familiar English personality adjectiv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0*, 61-77.
- Szirmak, Z., & De Raad, B. (1994). Taxonomy and structure of Hungarian personality trai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8*, 95-117.
- Tupes, E. C., & Christal, R. E. (1961). *Recurrent personality factors based on trait ratings*. (USAF Tech. Rep. No. 61-97). U.S. Air Force: Lackland Air Force Base, TX.
- Tupes, E. C., & Christal, R. E. (1992). Recurrent personality factors based on trait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60*, 225-251.
- Watson, D., Hubbard, B., & Wiese, D. (2000). Self-other agreement in personality and affectivity: The role of acquaintanceship, trait visibility, and assumed simila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546-558.

K C I

부록 1. HEXACO 성격검사에서 측정되는 24개 하위척도

정직/겸손성 요인

- ◆ 진실성 척도(Sincerity): 대인관계에서 꾸밈없고 거짓없는 정도를 평가한다.
- ◆ 도덕성 척도(Fairness): 부패나 부정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 ◆ 청렴성 척도(Greed Avoidance): 높은 사회적 지위나 사치스러운 물품, 그리고 많은 재산 등을 추구하지 않는 정도를 측정한다.
- ◆ 겸손성 척도(Modesty): 겸손하고 남에게 자랑하거나 잘난 체하지 않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정서성 요인

- ◆ 두려움 척도(Fearfulness): 공포를 느끼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낮은 점수를 갖는 사람은 용감하고 거세며, 신체적 안위에 대해 신경을 덜 쓴다.
- ◆ 불안 척도(Anxiety): 여러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한다.
- ◆ 의존성 척도(Dependence):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 ◆ 감수성 척도(Sentimentality): 다른 사람과 정서적 유대를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의 고득점자들은 타인의 감정에 더 민감하며, 더 강한 정서적 애착을 필요로 한다.

의향성 요인

- ◆ 표현성 척도(Expressiveness): 대인행동 스타일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생동적인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 ◆ 사회적 대담성 척도(Social Boldness): 여러 사람 앞이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평가한다.
- ◆ 사회성 척도(Sociability): 친구들과 모여 놀고, 잡담과 대화를 즐기고,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 ◆ 활력 척도(Liveliness): 일상적으로 나타내는 열성과 적극성, 그리고 에너지 수준을 측정한다.

원만성 요인

- ◆ 관용성 척도(Forgiveness):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 ◆ 온유성 척도(Gentleness):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이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심하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 ◆ 융통성 척도(Flexibility): 다른 사람과 타협하고 협동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 ◆ 인내성 척도(Patience): 화를 잘 내지 않는 정도를 측정한다.

성실성 요인

- ◆ 치밀성 척도(Organization): 환경을 잘 정돈해 놓거나 과제완수를 위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 ◆ 근면성 척도(Diligence): 목표를 세워 열심히 일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 완벽성 척도(Perfectionism): 철저함을 추구하고 세밀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한다.

◆ 신중성 척도(Prudence): 심사숙고하고 충동을 자제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개방성 요인

◆ 심미성 척도(Aesthetic Appreciation): 자연과 예술에 대한 아름다움을 즐기는 정도를 측정한다.

◆ 지적호기심 척도(Inquisitiveness): 자연과 인간세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직접적인 경험을 추구하거나 혹은 학습을 통한 간접 경험을 추구한다.

◆ 창조성 척도(Creativity): 실험정신과 혁신을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 비관습성 척도(Unconventionality): 새롭거나 통상적인지 않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K C I

Abstract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Tae-Yong Yoo
Kwangwoon University
Korea

Kibeom Lee
University of Calgary
Canada

Michael C. Ashton
Brock University
Canada

Recent lexical studies of personality structure suggest that there are six independent major dimensions of personality.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HEXACO-PI), a new questionnaire that measures these six lexically-derived personality constructs, was examined in a Korean context using samples of 281 undergraduate students. The scal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XACO-PI were shown to have acceptable psychometric properties, including acceptable internal-consistency reliabilities, factorial validity, low scale intercorrelations, and high convergent correlations. Although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for some facet scales, the Korean version of the HEXACO-PI appears to be useful for researchers who wish to measure the major dimensions of personality, for theoretical and for applied purposes.

key words: Big 5 personality factors, HEXACO model, lexical studies of personality structure, convergent validity